

올해의 차, 르노삼성 다시 일으킨 'SM6'

자동차전문기자협 '2017 올해의 차' 시상식

'SM6' 올해의 디자인상까지 수상 2관왕
올해의 퍼포먼스상 '쉐보레 카마로 SS'
SUV '볼보 XC90' 친환경차 '아이오닉'



“르노삼성자동차는 새로운 트랜드 제시하는 회사가 될 것.”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17 올해의 차' 시상식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2017 올해의 차'는 르노삼성 SM6가 차지했다.

수상을 위해 참석차 르노삼성 박동훈 대표는 “SM6는 르노삼성이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차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시했기에 전문가협회가 주는 이 상이 그 무엇보다 반갑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산차 시장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며 나름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량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트랜드를 제시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6가 올해의 차를 수상한데 이어, 올해의 디자인상까지 수상하는 경이사를 누렸다.

'올해의 퍼포먼스'상은 쉐보레 카마로 SS가 수상했다. 한국지엠 황지나 전무는 “치열한 경쟁에서 전문가들이 뽑는 가장 공정한 받고 싶은 상을 수상해 기쁘다. 카마로 SS는 부산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스포츠차가 부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올해는 신형 크루즈를 출시한다.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2017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볼보자동차 이윤모 대표(왼쪽부터), 한국지엠 황지나 전무, 르노삼성 박동훈 사장, 현대차 성인환 상무(오른쪽부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SUV는 볼보자동차의 XC90이 받았다. 볼보자동차 이윤모 대표는 “XC90은 지난 2년간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전문가협회가 준 이 상이 가장 의미가 크다. 낱말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UV 시장에서 올해의 SUV로 선정되어 기쁘다. 볼보자동차는 앞으로 인간중심의 철학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친환경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수상했다.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성인환 상무는 “미래 신기술의

상징인 친환경차 부문 수상을 현대자동차가 미래 기술에 앞선 회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까지 출시했는데,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자평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차 시상식은 5회째를 맞이했다. 협회는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2015년 인피니티 'Q50', 2016년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각각 '올해의 차'로 선정할 바 있다.

원성필 기자 sereno@donga.com

날씨와 생활

1월 6일(금요일) 음력 12월 9일

서울 10/10	인천 10/10	강릉 20/10
대전 10/10	청주 10/10	울릉도 10/10
광주 20/10	춘천 10/10	대구 20/10
제주 60/20	전주 20/10	부산 1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지역 최저 최고기온°C
해돋이 07:47 / 해질 17:29 / 달출 12:36 / 달침 00:30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0/9	인천송도 1/8	서울 36 보통
설악산 1/9	제주도 -1/9	부산 36 보통
오대산 -4/6	경포대 1/9	대구 41 보통
계룡산 -1/9	속초 1/9	인천 64 보통
속리산 -1/9	대전 2/10	광주 104 나쁨
소백산 -1/9	안면도 꽃지 2/10	대전 41 보통
팔공산 -1/9	변산반도 0/11	울산 32 보통
지리산 -1/10	거문도 4/10	경기 35 보통
덕유산 -3/10	철포 4/9	강원 26 보통
내장산 0/11	해운대 5/12	충북 59 보통
한라산 3/6	제주도 9/14	경남 35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7일(토)서울경기 0/8 ~ 8/10
8일(일)서울경기 2/8 ~ 8/10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6일(금요일) 음력 12월 9일

쥐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싸늘, 소심한 날. 운세: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쾌청, 상쾌. 운세: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사업업도 좋으며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구름, 자유 추구. 운세: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여유비, 겨우 해결. 운세: 잠재력 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명예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난 주변인 사정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과분한 응답이 있는 날이다.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속아서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잘못서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자중지란의 날이다.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오늘은 부부간의 분쟁, 아버지와의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볼 수 있는 날이다. 길방: 동
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 쾌청, 힘찬 하루. 운세: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강한인 정성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과감성을 가지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 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굳은 얼음이 풀리고 물결이 일제히 썩는 기운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저널이 산천 조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형상이다. 물질적으로 중분히 못해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버리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 하라.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 맑음, 평화롭다. 운세: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닌 언동을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 해, 번개, 갈등. 운세: 눈앞의 작은 이익 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써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이익이다. 길방: 서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4, 9)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토끼, 양, 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10대 남학생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여유증'

■ 의학칼럼



남성의 유두 주위나 유방 부위가 불룩하게 솟아 여성들의 유방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여유증'이라고 한다. 여성형유방증의 준말이다. 여유증이 있는 남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티가 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자신감 상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여유증은 여성호르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대 때는 특히나 에스트로겐과 안드로젠 등 호르몬의 분비가 안정적이지 못해 여성 호르몬 증가로 여자처럼 가슴이 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비만으로 가슴에 지방이 축적돼 나타날 수도 있다. 한번 축적된 지방조직은 부피를 쉽게 줄이기

어렵다. 이 외에도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등 내분비계나 고환에 종양이 있는 등 질환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40~50대 이후는 피부탄력 저하로 여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여성형유방증 치료에 중요한 진단과 치료 방법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유증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에게 알맞은 진단과 적절한 치료다. 먼저 혈액검사를 통해 여유증을 유발할 다른 질환이 있는지, 호르몬 수치는 어떤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유방종양 여부를 감별하고 커진 곳이 어느 조직인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진단 결과 원인이 단순 비만에 있다면 다이어트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만약 지방축적과 함께 유선이 발달한 상태라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정확한

치료방법은 비정상적인 유선조직과 지방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방법이다.

유륜 둘레를 절개하는 수술이 효과적이다. 절개한 유륜 가장자리로 지방을 흡입해 가슴을 평평하게 만든 뒤 유선조직의 정확한 위치와 조직의 정도를 파악해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륜절개는 유선조직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확인과 제거가 가능하다. 수술 뒤에도 흉터가 유륜 색상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마찬가지로 흉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흉터의 숙련도나 수술방법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술 전에 숙련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본인에게 알맞은 수술방법을 찾는 검사 등을 통해 병원을 선택하고 수술받는 것이 안전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한다.



프라우데비노기과 황인성 원장

■ 인사



한국IBM ▲대표 장화진
새유어랜드로코리아 ▲CS 총괄 사무 조기호
세정 ▲부사장 김명수 ▲전무이사 김경규

TBWA코리아 ▲상무 양근우 이숙인 금광우 ▲수석국장 김경태 이원빈 ▲국장 이정애 서민석 김영옥 박승재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조정숙 ▲약제부장 조윤숙 신한생명 ▲신규 선임 <상무> ▲준법감시인 장우희 ▲정보보호본부 남기호 ▲승진 <본부장> ▲영남본부 김상기 ▲고객지원본부 정봉현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겸 여론조사본부장 김춘석 수협중앙회 ▲승진 ▲감사실장 한철희 ▲경남지역본부장 김현수 ▲정책보험부장 어영일 ▲IT관리실장 성낙근 ▲총무부 우동근(교육) ▲총무부 오준영(교육) ▲준법감시실장 정지열 ▲유통사업부장 이승룡 ▲공제보험부장 이영준 ▲노량진개발사업부장 박중근 ▲판매사업부장 이종환 ▲연수원 임정배

■ 부고

▲황규태씨 별세. 황선숙(MBC 심의국 TV심의부 부장급)씨 부친상=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02)2227-7500

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홈리빙페어' 등 개최 동아전람이 개최하는 '제43회 MBC건축박람회'와 '제13회 동아 홈리빙페어'·'2017 동아 가구·인테리어박람회'가 12~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과 양재동 aT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전시 품목은 건축자재·인테리어·전원주택·냉난방기·주방 및 건축 정보·가전·주방용품·욕실용품·가정용가구 등 기타 생활용품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동아전람 측은 "동아전람 홈페이지(www.dong-affairs.co.kr)에서 사전등록 시 무료 관람 초청장을 우편 혹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고 했다. 문의 (02)780-0366.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2	1			8	
4		7	8			1
		1	5			9
	7	3	6	8	1	
		2	7			
	1	6	8	4	5	
3		8	1			
1		6	9			8
	6			1	7	

	2			6	8	
4		7	9			3
		3	7	4		
5	9		8	6		
	8	1	2	9		
	4	6	8		1	
	9	8	3			
3		4	9		8	
4	9			1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정답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토쿠.kr

4	1	2	9	6	9	8
8	8	6	7	9	1	9
5	6	9	1	2	8	7
1	9	7	8	6	9	1
9	8	6	1	2	9	8
2	1	8	7	9	6	8
6	7	9	9	6	8	1
6	7	9	2	1	8	9
1	9	2	8	1	9	6
8	9	9	6	7	1	2
6	8	1	9	9	7	6
2	1	8	9	6	8	1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유리경영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현대이벤트부 02 2020 1065
편집부 02 2020 1032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주)03187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계천로 1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60
스포츠3부 02 2020 1059 스포츠4부 02 2020 1069
편집인 이성준 연재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광고국장 이승욱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인쇄 동아일보사 sol@donga.com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